

수직이착륙 UAM 모형기·인기車

25일부터 28일까지 광주미래산업엑스포 현대차그룹 ‘주목’

‘2025광주미래산업엑스포’에서 신기술 및 인기차종을 선보일 현대자동차그룹의 테크관과 현대차관, 기아차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에 참가한다.

광주미래산업엑스포는 광주광역시 주최하는 미래 모빌리티 전후방 산업 융합 전시회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가한다. 이번 엑스포 기간 동안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그룹 테크관, 현대차관, 기아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테크관에는 차세대 소프트웨어 중심공장(SDF) 구축의 핵심요소인 AMR·MPT(물류 모빌리티 로봇) 기술, 수요자 맞춤형 차량(PV5), 수직이착륙 UAM(미래항공모빌리티) 모형기 등을 선보인다.

미래산업융합포럼에서는 AI융합 모빌리티 신기술, 전기차 화재예방 서도 기술, 휴머노이드 로봇기술 등 첨단 분야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와의 네트워킹과 정보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차관에는 지난 10일 판매개시된 ‘디 올 뉴 넥소’와 현대차 전동화 플래그십 SUV 모델인 ‘아이오닉9’, 현대 N브랜드 최초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N’가 전시된다.

‘디 올 뉴 넥소’는 현대차그룹의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로 지난 2018년 3월 첫 출시 이후 7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완전변경 모델이다.

기아관에는 기아 PBV 시리즈 첫 번째 모델인 PV5, 기아 최초 전용전기차 세단 EV4, 기아 최초 픽업트럭 타스만이 전시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PV5는 기아의 PBV(Platform beyond Vehicle) 비즈니



스 전략에 따라 탄생한 첫 번째 모델로 모빌리티 서비스, 물류, 레저활동 등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를 바탕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광주 5년간 물가 15.9% 상승… 코로나 절정 2022년 최고

2023~2024년 전국 평균보다 0.1%p·0.2%p 높아

광주광역시의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9%로 조사된 가운데 매년 분기별 평균 0.6%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19~2024년) 광주시 소비자물가 변화’에 따르면 광주 소비자물가 지수는 2019년(+0.2%), 2020년(+0.4%), 2021년(+2.6%), 2022년(+5.1%), 2023년(+3.7%), 2024년(+2.5%)까지 상승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 지수는 2019년(+0.4%), 2020년(+0.5%), 2021년(+2.5%), 2022년(+5.1%), 2023년(+3.6%), 2024년(+2.3%) 등이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낮았으나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0.1%p, 0.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소비자물가는 2020년 4분기 이후부터 지속된 고유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고환율 영향을 받아 상승했으며 2022년 3분기 이후부터 상승 폭이 둔화했다.

최근 5년간 광주 소비자물가는 2022년 가장 높은 상승률(+5.1%)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수요 증가와 공급망 차질 등이 겹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체감물가를 반영한 생활물가 지수는 18.2% 상승했으며, 분기 평균 0.7% 올랐다.

가장 높게 오른 품목은 식품(+28.0%)으로 분기 평균 1.1% 상승했다. 식품 이외는 13.0% 올랐으며 분기 평균 0.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중 신선식품은 분기 평균 1.4% 상승하는 등 36.5% 치솟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신선채소(+55.9%), 신선과일(+36.2%), 신선어개(+18.0%)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광주 서비스 물가도 5년간 12.9% 상승했다. 가장 높게 오른 품목은 개인서비스(+20.0%) 품목으로 2020년 4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국내단체 여행비 41.9%, 영화관람료 32.1%, 휴양시설 이용료 31.0%, 국내 항공료 27.6%, 보험서비스료 25.6%, 생선회(외식) 21.8% 순 등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생활물가 지수 가운데 식품은 국제유가 상승과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친 2020년 2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16.2%’ 상승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승세는 그치지 않았다. 2022년 4분기부터 2024년 4분기 기간에도 7.6% 상승해 장바구니 물가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신종팔 기자

전남도, 중소 소비재 기업 유럽시장 진출 기반 마련

파리 코리아 엑스포 10개 기업 참여 315만 달러 수출협약

전라남도는 ‘2025 파리 코리아 엑스포(Korea Expo Paris 2025)’에 참가해 315만 달러 수출협약, 1천351만 달러 수출상담을 하는 등 전남 중소 소비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박람회와 유럽 경

제의 중심지인 프랑스에서 케이(K)-산업 을 직접 알릴 수 있는 글로벌 교류의 장이자, 최근 프랑스 내 확산 중인 한류 열풍을 활용해 전남 소비재의 수출 확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B2B와 B2C 복합형 전시회라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참가했다.

지난 15일까지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전남 10개 사를 포함해 전국 144개 유망 소비재 기업이 참가했다. 유럽 168개 사 바이어가 현장을 방문해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다. 전남 참가기업은 총 146건의 수출상담을 진행, 이 가운데 약 315만 6천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 기업들은 김, 떡, 한복, 화장품 등 유럽 소비자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품을 전시해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염선호 기자

국제농업박람회 사전예매 입장권 온라인 할인판매

인터파크·네이버 최대 30%… 행사장 사용페이백 쿠폰도 제공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2025국제농업박람회 사전예매 입장권을 인터파크와 네이버를 통해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행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3천 원 상당의 페이백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5 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나주 산포면 전남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미래 농업의 비전과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람회에는 25개국 380여 기업·단체가 참여해 농업 관련 최신 기술과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우수 농산물 수출 상담과 다양한 전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온라인 구매는 네이버나 인터파크에

국제농업박람회를 검색해 ‘예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다.

사전예매 가격은 일반권 7천 원(현장 판매 1만 원), 청소년권 6천 원(7천 원), 어린이권 2천 원(3천 원)으로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3천 원 상당의 쿠폰(어린이 제외)도 제공된다.

또한 관람객의 전남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전남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입장권 할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박람회 참여와 전남의 다양한 관광 명소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관수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입장권 사전예매를 통해 보다 많은 관람객이 혜택을 누리며 박람회를 즐기길 바란다”며 “이번 박람회가 농업



의 미래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입장권 예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사무국(061-339-92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영길 기자

전남산 김·쌀·전복·김치 인기… 28개월 연속 수출 증가

농수산물식품 주력 품목 강세… 3억5000만 달러 돌파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이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까지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3억535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8.2%)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김, 쌀, 음료, 김치, 오리털 등 10대 주력 품목이 수출 증가세를 견인, 전체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한 품목은 단연 김이다. 수출액은 1억7954만5000달러에 달한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9% 증

가했다. 김은 전남 농수산물 수출의 절반 이상(50.8%)을 차지하며 수산물 분야에서는 79.6%를 점유하고 있는 절대 강자다.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은 쌀이다. 수출액은 2773만7000달러다. 오리털은 1759만4000달러를 기록하며 20.5% 증가해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 동남아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외 전복은 1478만9000달러로 다소 높은 수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음료는 1307만1000달러로 26.2% 증가하면서 가공식품의 수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외에도 ▲미역 1206만 달러 ▲분유 1076만6000달러 ▲유자차 719만3000달

러 ▲톳 542만 달러 ▲과자류 397만8000달러 ▲커피 조제품 336만5000달러 ▲김치 319만7000달러 순으로 높았다.

특히 과자류와 음료, 김치와 같은 농산 가공품이 두 자릿수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점은 가공식품 분야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해준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1.7%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 이어 중국(10.9%), 일본(0.8%) 순으로 수출이 확대됐다. 신남방국가(36.9%)와 유럽 주요국(10.3%)도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새로운 수출 성장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김, 쌀, 전복 등 주력품목 이외에도 가공식품 분야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며 “시장 다변화와 맞춤형 수출 지원정책을 통해 전남 농수산업의 수익성을 지속해서 높여겠다”고 말했다.

/우인 기자

전남도, 지역경제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 집중 육성

3년 이상 운영·최근 매출액 20억 이상 모집해 경영 지원

전라남도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주간 2025년 유망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전남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지속한 중소기업 중 최근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재무 현황, 기술력, 고용 창출 성과 등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할 방침이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실질적 경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융자 한도 상향 및 이자 지원 우대 ▲판로 확대·수출 마케팅 등 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3년간 전남도 및 시군의 세부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경영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남도의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유망 중소기업을 도 차원의

대표기업으로 집중 관리하고, 향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채도와 기회를 제공, 기업의 자립성과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유망 중소기업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 주체”라며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세심한 정책을 지속 발굴해, 유망 중소기업이 전남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글로벌시장에서도 활약하도록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기 기자

